

##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

박정수\*

### 1. 서론

성경의 인명과 지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수천 년의 시간과 동서양의 공간을 뛰어넘는 어려운 번역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신약의 인명과 지명 표기의 토대가 되는 원지음(原地音)은 구약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와 코이네 그리스어였다. 당시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며 그리스어와 함께 라틴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이 두 언어는 이후 서구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렸다. 성경의 인명은 기독교 문화와 함께 각 민족어로 변용되어 고스란히 인명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명은 역사 속에서 명멸과 변천의 과정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성경의 우리말 독자들은 국어와 함께 세계의 통용어처럼 사용되는 서양언어들로 정착된 인명과 지명을 수용하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대 서양어로 수용된 인명과 지명 혹은 나라명이 교과서와 인터넷 상에서 표준어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그것과는 다른 표기체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의 괴리감은 크다. 『개역개정』의 독자들에게 인명 파라오를 “바로”, 페트로스를 “베드로”, 파울로스를 “바울”이라고 읽거나, 지명 아테네를 “아텐”으로,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발음하는 어려움은 물론, 국가 이름 이집트를 “애굽”으로 혹은 페르시아를 “바사”로 읽어야 하는 어려움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성결대학교 신약학 교수.  
pjs@sungkyul.ac.kr.

생각보다 크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괴리를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 맥락에서 읽기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신앙과 가치체계를 세상 속에서 소통하기도 어려움을 준다. 이렇듯 신약의 인명과 지명의 우리말 표기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 글은 현재 『개역개정』의 인명과 지명표기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제안이다. 인명의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성경의 인명은 우리말은 물론 서양언어를 수용하는 나라들에서도 ‘당대(當代) 원지음(原地音)’과는 격차가 큰 채로 동화되어 거의 그 문화에 토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이에수스(Ἰησοῦς)’의 영어식 음역 ‘지저스(Jesus)’는 독일어 ‘예수스(Jesus)’나 우리말 ‘예수’ 보다 원지음에서 더 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우리말에서 관용(慣用)으로 굳어진 인명표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인명은 세계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을 현실화하도록 최소한의 개정을 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명은 상황이 다르다. 지명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서 거의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기에 성경의 역사와 현재의 세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적지 않은 지명과 나라명은 현재 세계 통용어로 표기되어 문헌과 인터넷, 공식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의 지명표기를 현실화 할 필요성은 크다. 이런 의미에서 지명표기를 사용언어 ‘당대(當代) 원지음’이라는 잠정적 원칙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당대 원지음’의 재구성과 수용어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관용(慣用)으로 정착된 용어들을 개정하는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 시행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도 결국은 원지음을 따르는 원칙과, 관용을 존중하여 그 범위와 용례를 정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sup>1)</sup>

이 글에서는 우선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과 모음 음가의 우리말 표기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그리스어의 ‘원지음’이 라틴어는 물론 서양현대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인명지명표기에서 관용으로 정착된 용어들을 범주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독일어

1)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 3. 28.)”,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28](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28) (2022.7.30.).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Ankara 앙카라, Gandhi 간디).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Hague 헤이그, Caesar 시저).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성경번역 전통에서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한 “성경의 고유명사의 통일된 표기를 위한 로쿰 지침”(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작업은 중요한 사례이다. 이는 구약과 신약은 물론 특별히 ‘신구약중간사’에서 자주 제기되었던 인명과 지명의 통일된 표기를 위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협의한 작업의 결과이다. 이 자료는 비록 다른 언어권에서 시행된 사례지만 관용의 범주를 구성하는 우리의 작업에 통찰력을 더해 줄 수 있다.<sup>2)</sup>

현 『개역개정』(1998) 인명지명표기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 논문에서,<sup>3)</sup> 신약성경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검토할 수는 없었고, 사도행전을 자료로 삼아 작업하였다. 사도행전이야말로 헬레니즘 시대 인명과 지명에 관한 역사자료의 보고(寶庫)와도 같아서 작업에 요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의 마지막 결론으로 필자는 NTG<sup>28</sup>을 원문으로 하여 사도행전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개역개정』(1998)과 『공동개정』(1999)은 물론 가장 최근에 발행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과 일일이 비교 검토하여 표기를 제안했다. 『새번역』(2003)은 인명지명에 있어 전적으로 『개역개정』을 따르고 있기에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공동개정』의 인명지명 표기 원칙은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재개정’ 제안의 원칙으로 삼은 ‘파열음 표기의 분화’(즉 ‘ㄲ, ㅌ, ㅋ’ 사용)를 일관되게 관찰하고 있지 않아서, 이 글의 본문에서 일일이 비교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결론의 ‘비교’란에 본문에서 설명한 규칙들을 간단한 도식(\*, \*\*, <, 그 등)으로 표기해 설명했다.

## 2. 신약성경 우리말 표기의 주요 쟁점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표기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우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제 1장의 표기원칙은 다음과 같다.<sup>4)</sup>

2) 이 자료는 현재 독일성서공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https://www.die-bibel.de/bibeln/wissen-zur-bibel/wissen-bibeluebersetzung/loccumer-richtlinien/> (2022.7.30.).

3) 참고로 본 논문에서 『개역개정』의 현재 인명지명은 “ ”로 표기하였고, 새로 제안하는 표기는 ‘ ’로 표기하였다(예, “수리아”와 ‘시리아’). 이 글에 원문을 인용할 때 수많은 용례를 ‘ ’로 표기할 때마다 ( ) 안에 그리스어를 삽입하지 않았으나, 결론에 제시한 도표에는 모두 기록하여 두었다.

4)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음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그리스어의 음가 전체를 재구성 하는 문제는 이 글에서는 다루기 어렵다. 현재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표기체계를 연구하여 제안하고 있는 학자는 민경식과 이상일 두 사람인데, 이들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기본적인 표기원칙에서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는 민경식이 제안하여 정리한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sup>5)</sup>을 수용하되, 아래의 몇 가지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한다.<sup>6)</sup> 먼저, 그리스어 표기법 일반에서는 자역(transliteration)보다는 음역(transcription)을, 그러나 인명과 지명의 경우에는 자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sup>7)</sup> 우리의 논의의 핵심 쟁점은 자음에서는 ‘파열음 표기법’과 모음에서는 ‘v’의 표기법이다. 두 학자의 의견을 통해 우선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

## 2.1. 자음

민경식은 최인호의 『우리 말글 사전』에 나오는 그리스어 자음과 모음 체계를 검토하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종합하여 제안하고 있다. 민경식은 여기서 현재 우리말 성경에서 파열음을 일괄적으로 양순음과 치조음, 구개음 순서로 ‘ㅂ, ㄷ, ㄱ’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되, 외래어 표기법을

---

egltNView.do?regltN\_code=0003#a425 (2022.7.30.). 현재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1991년에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격월로 모여 국어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한글 표기를 심의하고 있다. 출판된 사전은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편, 『세계 인문지리 사전』 상·하권 (서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2009)을 보라.

- 5)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신약논단』 17:1 (2010), 177-200, 특히 189-193. 여기서 민경식은 외래어표기법 일반원칙을 그리스어 음가에 적용하고 있기에 별도로 음역 세부사항은 인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6) 민경식의 ‘성경 그리스어의 음역 원칙’의 기초적 문제이므로 가장 마지막에 부록으로 인용하여 첨부해 둔다.
- 7) 음역과 자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Ibid., 184(“음역은 원천문자의 소리를 수용문자의 소리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나, 자역은 원천문자를 수용문자의 대응문자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를 참고하고, 인명지명에서 자역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51-170, 특히 154를 참고하라.

따라 유성 파열음 ‘π, τ, κ’, ‘φ, θ, χ’는 ‘프, 트, 크’로 하고, 유성 파열음 ‘β, δ, γ’은 된소리 ‘뽀, 댕, 꺄’ 대신 거센소리 ‘ㅂ, ㄸ, ㄱ’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sup>8)</sup>

그런가 하면 이상일<sup>9)</sup>은 이제까지 에라스무스의 “이항 대립 체계”로 분류한 그리스어의 음운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삼항 대립 체계”로 분류할 수 있음을 여러 논증을 통해 제시한다.<sup>10)</sup> 또한 우리말 파열음의 체계도 삼항 대립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무기 무성 파열음인 ‘π, τ, κ’를 ‘뽀, 댕, 꺄’로, 유기 무성 파열음 ‘φ, θ, χ’를 ‘프, 트, 크’로, 유성 파열음 ‘β, δ, γ’는 현재와 같이 ‘ㅂ, ㄱ, ㄸ’로 구분하자는 제안이다.<sup>11)</sup>

그러나 만일 이상일의 견해를 따르자면 현재 외래어 표기법과 불일치하게 되는데, 별도의 규범을 다시 제안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고, 또한 우리말 음역을 이른바 삼항 대립 체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설령 삼항 대립 체계가 옳다 할지라도 『개역개정』의 ‘재개정 원칙’으로 수립하는 면에서나, 서양 언어와의 괴리를 극복하는 면에서나 현실적이지 않다. 재개정 원칙은 문장의 음역을 ‘당대 원지음’을 재구(再構)하기보다는, 서양고대사의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과 성경의 인명지명의 표기법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열음을 이제까지 유성과 무성 모두 ‘ㅂ, ㄱ, ㄸ’로 표기하던 방식에서, 무성 파열음(‘π, τ, κ’, ‘φ, θ, χ’)의 경우에는 ‘프, 트, 크’로 표기하는 민경식의 제안을 수용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한다.

사실 인명지명에서 무성 파열음에서 ‘프, 트, 크’ 표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개역개정』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명과 지명에 ‘프, 트, 크’를 ‘ㅂ, ㄱ, ㄸ’로 통합하여 발음하던 관습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입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도들의 이름까지는 기존의 관용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삼아야 하겠다. 핵심은 결국 관용을 어디까지 존중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인 범주로 나누어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자음표기에서 더 고려할 사항은 외래어 표기법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이다. 민경식은 여기서 ‘ㅅ’을 사용하지 않기로

8)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88. 민경식은 무성 파열음에 관한 문제를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을 따르고자 한다. 즉, [p], [t], [k] 계열의 무성파열음을 표기할 경우, 경음(된소리: ‘뽀, 댕, 꺄’) 대신 격음(거센소리: ‘프, 트, 크’)을 사용한다.

9)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 151-170.

10) 이상일은 학자들의 6가지의 논증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파열음을 다음과 같은 삼항 대립 체계로 정리하고 있다. 이상일,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 음가 재구”, 「성경원문연구」 42 (2018), 68-89, 특히 77-80.

11) Ibid., 80.

하는데, 소수의 고유명사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어말에 오는 ‘θ’나 ‘τ’ 바로 앞 모음이 단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기고는 있다.<sup>12)</sup> 하지만 장모음이 앞에 올 경우에도 ‘ς’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Δαυίδ’는 ‘다위드’보다는 ‘다윗’이, ‘Ρούθ’는 ‘루트’보다는 ‘룻’이, ‘Ἰωβήδ’은 ‘요베드’보다는 ‘요벳’이 『개역개정』의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명과 지명에서 필요한 경우 ‘ς’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자음에서 고려할 또 다른 문제는 ‘ρ’([r])를 음절의 받침으로 사용할 때 ‘르’를 사용하는 문제이다. 현행 표준대백과사전이나 우리말 외래어 표기법은 어말(語末)의 ‘r’ 발음을 ‘르’로 표기하지만, 어두(語頭)나 어중(語中)의 자음 앞에서 ‘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어식 표기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두드러지는데,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에서는 ‘르’가 유지된다(바르셀로나, 블라디미르, 아미르 등).<sup>13)</sup> 현재 『개역개정』은 라틴어와 프랑스식 표기를 선호하는 『공동개정』과는 달리 영어식 표기를 선호하기에 음절끝 받침으로 ‘르’를 회피하는데, 이 역시 외래어표기법을 따라 자음 앞 [r]를 ‘르’로 표기하자. 특히 ‘바르’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리스어로 표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 “바돌로매”, “바나바”, “바사바”, “바예수” 등 이미 관용으로 정착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바나바(Βαρναβᾶς)”를 ‘바르나바스’와 ‘바나바스’ 중에서 무엇으로 표기할 것인가? 또 “서기오(Σέργιο Παῦλος 행 13:7)”를 ‘세르기오’로 표시할 것인가? 이 역시 관용의 범주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겠는데, 앞서 말한 대로 사도의 이름을 관용으로 유지한다면, 사도 ‘바돌로매’와 ‘바나바’는 개정하지 않지만 ‘바사바’, ‘서기오’ 등은 원지음을 따라 ‘바르사바’, ‘세르기오’로 표기해야 한다.

## 2.2. 모음

모음의 음가 표기법에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논쟁이 되는 사항은 ‘υ’의 음역인데, 민경식과 이상일은 고대 그리스어와 신약성경

12) “예를 들면, Ἰάρετ(이아렛?, 이아레트), Ναζαρέθ(나자렛?, 나자레트) 등이다. 그러나 Ἰσκαριώθ(이스카리오트)는 테타(θ) 바로 앞의 모음이 장음이기 때문에 ‘이스카리웃’이 될 수 없다.”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음역 원칙 제안”, 187, 각주 26.

13) “1. 자음 앞의 [r]는 ‘으’를 붙여 적는다.”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 제 2절 독일어의 표기”,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62](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62) (2022.7.30.)

코이네에서 ‘기’로 표기해야 한다는데 일치한다. 서양고대사에서도 ‘당대 원지음’ 원칙에 의거하여 ‘기’로 표기되고 있는데, 현재 고전 그리스 시대와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무수한 고전들을 우리말로 완역하고 있는 천병희의 표기 사례에서도 이 규범은 잘 지켜지고 있다.<sup>14)</sup>

하지만 문제는 현대 우리말 인명지명사전과 인터넷사전 등에서는 ‘u’ 음가를 [ ]로 표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지만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용례에서 그리스어 표기 원칙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주로 인명과 지명을 사례로 들고 있었다.<sup>15)</sup> 여기서도 ‘u’는 영어식 음가 [y]에 해당하는 우리말 음가 [ ]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Πολύβιος(Polybios)’를 ‘폴리비오스’로, ‘Αἰσχύλος(Aeschylus)’를 ‘아이스킬로스’로 그리고 ‘Ὀδύσσεια(Odyseia)’를 ‘오디세이아’로 표기한다.

이상일은 둘 이상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대응규칙을 토대로 음성을 재구성하는 비교재구(caoparrative reconstruction) 방법론을 통해서 ‘u’는 “전설 고모음 [y]에 가까운 소리 ‘위’로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순모음”이라고 판단한다.<sup>16)</sup> ‘우’나 ‘이’가 아니라 ‘위’로 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불가타(Vulgata)에서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음역할 때 ‘i’보다 ‘y’로 표기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sup>17)</sup> 그러나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라틴어와 음역에서도 ‘u’를 음가 [i]로 표기하는 사례를 제시한다.<sup>18)</sup> 이상일의 판단대로, ‘u’는 독일어의 ‘ü’에 가까운 ‘y’로서 단순모음이며,<sup>19)</sup>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대로 ‘기’로 표기함이 옳겠다.<sup>20)</sup>

14) 대표적으로,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15) 이 규정은 1986년 5월 30일자 외래어 표기 용례집(인명·지명) 제9장에서 고시된 것이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편, 『국어 어문 규정집』 초판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2005), 383-384. 근래에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국립어문규정>외래어표기법>그리스어표기원칙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현재 외래어표기법 부분이 개편되어 제2장(각국어) “표기일람표”와 제3장 “표기세칙”에서 그리스어 표기원칙이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는 여전히 [ ]로 표기되어 남아있는데, 그 예는 위의 각주 1)을 보라.

16) 이상일, “비교재구와 내적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헬라어의 모음 음가 재구”, 『신약연구』 18:1 (2019), 79-103, 특히 95.

17) Ibid., 94.

18) 비문은 기원후 400년 이후, 파피루스에서는 2세기 후반에 이집트에서 더욱 자주 등장한다.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ed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7. Auf. (Göttingen: Vanderhoeck & Ruprecht, 1990), §31, 각주 1.

19) 이상일, “비교재구와 내적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헬라어의 모음 음가 재구”, 95-96.

20) 민경식이 잘 판단한 것처럼 “입실론(u)이나 람다(l)를 표시하기 위해 구두인처럼 우리말 현용 24자에 없는 새로운 기호(각각 ‘ㄴ’와 ‘ㄹ’)를 만들지도 않는다.”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86, 각주 21; 구두인, “希臘語와 韓國語 發音의 比較”,

그런데 몇 개의 이집트 사본에서 “βιβλίον, βίβλος”가 각각 “βυβλίον, βύβλος”로 혼용되고 있듯이 “ι ει η (η) οι υ (υ) οι가 모두 ι로 발음되는” 이른바 이오타시즘(Itazismus) 현상이 신약성경시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sup>21)</sup> 이렇게 ‘υ’는 기원후 200년부터 모음의 동화 및 축약(ει, υ, υι, οι→ι, αι→ε, ω→ο)과 함께 시작되어, 현대 그리스어에서 ‘ι’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현상은 인명과 지명이 코이네 그리스어 이후 나타난 그리스어 음가에 동화되어 현대의 표기법으로 정착되었고, 더욱이 라틴어에서도 ‘y’로 표기되어 내려왔기에 현대의 인명과 지명에 ‘υ, ει, υι, οι’가 ‘ι’로 정착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만 ‘이’로 음역하는 것이 좋겠다.<sup>23)</sup> 예를 들면, “빌립보(Φίλιππος)”<sup>24)</sup>는 ‘-οι’가 ‘-ι’ 발음되는 현상을 따라 현재까지 사용되는 ‘필리피’로 사용하면 된다. 또 “테살로니가(Θεσσαλονίκη)”와 같이 ‘-η’로 마치는 도시나 지역 명칭은 ‘ι’동화 현상에 의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같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테살로니키’로 사용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도 관용의 범주를 나누어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체로 인명에서는 ‘세계사적 인물’로 현재까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로, 지명에서는 고대지명으로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로 표기한다. 이 음가는 마지막 결론에서 제시한 사도행전의 인명지명 사례에서 세밀하게 적용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인명이든 지명이든 신약성경 본문 자체를 그리스어로 음역할 때에는 당대 원지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υ’를 ‘기’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의미하는 ‘κύριος’ Ἰησοῦς를 원문을 그대로 음역할 때는 ‘퀴리오스 예수스’라고 표기하지만, 지명 ‘Συρία’는 ‘쉬리아’로 표기하지 말고 ‘시리아’로 표기하여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의 표기법에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sup>25)</sup>

「신학논단」 7 (1962), 114-124(114).

21)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ed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22, 각주 1.

22) *Ibid.*, §22.

23) 최인호 편, 『개정판 바른 말글 사전』 (서울: 한겨레출판, 2007), 825-829. 이 책에는 “고전 그리스어와 현대 그리스어의 경계는 기원후 600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원후 600년 전의 인명은 고전 그리스어 표기법을 적용하고, 기원후 600년 후의 인명은 현대 그리스어 표기법을 적용한다. 지명은 원칙적으로 현대 그리스어 표기법을 적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와 현대 “그리스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시안)”가 제시되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υ’를 ‘이’로 표기하고 있다.

24) 참고로 복음서의 “가이사라 빌립보(Καίσαρείας τῆς Φιλίππου, 마 16:13; 막 8:27)”에서 “빌립보”는 인명 “필립”을 지명과 혼돈하게 만든다. 정확한 번역은 “빌립의 가이사라”(비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필립의 카이사레아”)로 표기한 셈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표기규칙을 적용한다면 ‘필립의 카이사라’가 된다.

25) 현재 『개역개정』의 경우 ‘수리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9번(마 4:24; 눅 2:2;



### 3. 관용의 범위

그렇다면 관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인명·지명에 관한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5항도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인명·지명의 세부규정에서도 자주 “관용을 존중”하거나 “따른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관용으로 보느냐, 또 개정을 할 경우 어떤 원칙으로 기존의 관용을 변경할지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범주별로 나누어보자.

#### 3.1. 어말 -s 생략

인명과 지명에서 원지음이 현대어로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어 어말 음가의 생략현상이다. 영어의 인명에서는 ‘파울로스(Παύλος)’를 폴(Paul)로, ‘플라톤(Πλάτων)’을 플라토(Plato)로, ‘필론(φίλων)’을 필로(Philo)로, ‘프톨레마이오스(Πτολεμαῖος)’를 프톨레미(Ptolemy)로, 그리고 지명에서도 ‘코린토스(Κόρινθος)’를 고린트(Corinth), 독일어에서도 ‘아리스토불로스(Ἀριστόβουλος)’를 아리스토불(Aristobul)로, 로마(Roma)를 롬(Rom), ‘아테나이(Ἀθήναι)’를 아텐(Athen), ‘밀레토스(Μίλητος)’를 밀레트(Milet)로 축약하기도 한다.<sup>26)</sup>

현재 『개역개정』의 인명표기에서도 예수스를 “예수”, 파울로스를 “바울”, 클라우디오스를 “클라우디오”, 스테파노스를 “스테반”으로, 또 지명에서는 코린토스를 “고린도”, 밀레토스를 “밀레도”, 폰토스를 “본도”, 필리포스를 “빌립보”, 에페소스를 “에베소”, 히에라폴리스를 “히에라볼리” 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외래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말 어말생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ς’로 끝나는 ‘-스’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처음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이수정의 번역본에서는 어말 ‘-스’를 생략하지 않았지만, 존 로스의 번역본부터는 생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sup>27)</sup> 이 현상은

4:27; 행 15:23, 41; 18:18; 20:3; 21:3; 갈 1:21), 그리고 아람을 수리아로 표기한 구약에서 2번(왕상 11:25; 렘 35:11) 모두 ‘시리아’로 개정할 수 있다.

26)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1-14, 특히 6.

27) 존 로스의 신약성경 번역본(Ross Version) 『예수성교전서』(1887)는 『신약전서』(1900)에 영

현재 『개역개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다. 특히 이름에서 이 현상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수’를 ‘예수스’로 바꾼다 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바울’을 ‘바울로스’ 혹은 ‘파울로스’로, ‘베드로’를 ‘베드로스’ 혹은 ‘페트로스,’ 또 ‘요한’을 ‘요한네스’라 부르는 것은 어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경본문에서 이들 이름은 주격으로 사용될 때만 ‘-ος, -ης, -ους’ 등으로 사용되지만 원지음에서 소유격이나 여격에서 ‘-스’ 발음이 탈락되고 목적격에서는 주로 받침 ‘ㄴ’으로 끝난다.<sup>28)</sup> 말하자면, ‘예수의’와 ‘바울의’는 원지음에서 ‘예수(Ἰησοῦ)’와 ‘파울루(Παύλου)’로, 그리고 ‘예수를’과 ‘바울을’은 ‘예순(Ἰησοῦν)’과 ‘파울룬(Παῦλον)’으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그러므로 서양문화권의 근대어가 성경의 그리스어 이름을 수용하면서 어말 생략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4개의 격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관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말은 생략과 함께 격조사를 사용하여야 하기에 ‘-스’탈락현상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스는’, ‘예수스의’, ‘예수스에게’, ‘예수스를’처럼 매우 어색한 표현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명에서는 어떨까? ‘파트모스’를 “밧모”, 튀로스를 “두로”, 폰토스를 “본도”, 타르소(수)스를 “다소”, 필립피를 “빌립보”, 에페소스를 “에베소”, 프톨레마이스를 “틀레마이”로 표기한다면, 고대 세계의 원지음은 물론 현재 통용되는 지명과도 큰 괴리감을 줄 수 있다. 어말 ‘-스’ 생략은 물론 자음에서 ‘교, 크, 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카파도키아를 “가바도기아”로, 키프로스를 “구브로”로, 파포스를 “바보”로, 페르가(게)를 “머가”로, 파타라는 “바다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의 지명은 사실 매우 어색한 지명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신약의 인명은 대부분 저명한 인물들이 아니지만, 반대로 지명은 현재까지 남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각국어로 정착되어 현재의 지명이 원지음을 그대로 따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명과 지명의 우리말 어말에서 일어나는 ‘-스’의 생략은 인명에서는 관용을 유지하고 지명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정하되, 각각 세부적 범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지명 ‘번역’작업에서 우리는 원지

향을 주었는데, 이 신약전서에 영향을 주었던 성경은 English Revised Version(1881/1885)과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이었다. 결국 이러한 번역은 구약과 더불어 『성경전서』(1911)가 되어 오늘날 『개역개정』의 모체가 되었는데, 이로 보건대 현재의 『개역개정』은 이수정 역본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1885)의 “예수쓰, 크리스두스, 요한네쓰” 등과 같이 어말 ‘-스’를 생략하지 않는 전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참고, 대한성서공회, “우리말 성경번역사” 및 “한글성경 계보도”,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2](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2) (2022.7.30.)

28) 예를 들면, 주격, 소유격, 여격, 목적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한다. 예수는 Ἰησοῦς, Ἰησοῦ, Ἰησοῦν, Ἰησοῦν으로, 바울은 Παῦλος, Παύλου, Παῦλῳ, Παῦλον 등과 같다.

음가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인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용례에 접근하도록 개정하여, 성경의 역사성과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보편성을 수용하자는 우리의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로 다른 규범과 척도를 가지고 기존에 사용된 성경의 인명과 지명 개정을 제안한다.

### 3.2. 인명의 표기 지침

사실 인명은 지명보다 개정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름들은 각 민족의 문화가 되어 사람이름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문화에서 이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데, 부모는 자기의 자녀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역사적 인물, 특히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부여한다. 몇몇 문화권들, 예컨대 히브리인들과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이름을 자녀에게 ‘그대로 부여’하지 않고 작명(作名)한다. 그러나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이 전래된 지 오래되어 한국에서도 성경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울, 요한, 다윗,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나 그런 인물들에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희망’을 부여한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희망’을 떠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명의 개정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sup>29)</sup> 그러므로 최소한의 개정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세워보자.

첫째, 앞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의 원칙을 준용한다.

둘째, 어말 ‘-스’를 생략하고, 그 직전모음의 표기는 『개역개정』이 사용한 관용을 따른다(예, ‘티모테오스’를 ‘티모테오’가 아니라 ‘티모테’로).

셋째, 예수와 12제자 및 그 밖의 사도 이름과 복음서명(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관용을 유지하되, 7인의 헬레니즘계 유대인과 서신서의 수신자와 같이 그리스 인명은 개정한다(스테판, 필립, 티모테, 필레몬, 티토 등).<sup>30)</sup>

넷째, 구약의 인물과 동일인일 경우는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되,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그리스어로 표기하고 로마의 관직과 이름을 가진 인명은 라틴어로 표기한다(예, 구약의 미리암과 동명이인 예수의 어머니는 신약원문대로 ‘마리아[Μαρία]’로, 그러나 “클라우디오[Κλαύδιος]”를 ‘클라우디우스’로)

29) N. A. Bailey, “Proper Names in the Bible: translation and transliteration issues”, *Work&Deed* 12 (2007), 1-22, 특히 6-7.

30) 그러나 지명은 ‘필립피’로(이오타시즘 현상 ‘οι’>‘ι’에 따라) 한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라틴어가 혼용되고 있는 다중언어 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정언어 선호도를 우선 인명부터 살펴보자. 헬레니즘 문화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유대인의 인명은 광범위하게 헬레니즘화되었다. 행엘(M. Hengel)의 판단에 의하면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언급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이름을 고수한 사람은 25% 이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up>31)</sup> 대다수 유대인은 ‘유대인 아무개’라는 식으로 구별해야 했을 것이다. 아예 새로운 그리스식 이름을 지어주는 사례가 많았는데, ‘테오도로스(Θεοδόρος)’ 혹은 ‘도시테오스(Δοσιθέος)’처럼 ‘신’을 넣어 짓는 경우가 흔했다.<sup>32)</sup> 또 ‘사라’에 해당하는 ‘아리스테이아(Ἀριστεία)’처럼 대응하는 이름이 있는가하면, 아랍어 ‘케파’를 ‘페트로스’ 번역하기도 하였고, ‘미리암’을 비슷한 음가의 그리스어 ‘마리아(Μαρία)’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그중 가장 선호하는 이중이름은 ‘시므온-시몬(Ἰωάννη-Σιμων)’이었다.<sup>33)</sup>

이렇게 신약시대 유대인의 이름 부여에서 히브리어 대신 그리스어를 훨씬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약성경 원문에 기록된 음가대로 표기하는 것이 최상이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유대인 대제사장을 그리스어를 따라 “아나니아(23:2; 24:1, Ἀνανίας)”로 표기하지만 히브리식 이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두의 ‘-n’를 반영한 그리스어 본문의 거친숨표 ‘’([ח])를 생략하지 않고<sup>34)</sup> ‘하나니아’로 표기하면 된다. 그러면 대제사장 “안나스”(행 4:6)도 ‘한나스’에서 ‘한나’가 되는데, 구약의 여성 ‘한나’와 동명이인이 되기는 한다. “아가보(Ἀγαβος)” 대신 ‘하가보’로 하여야 하는데, ‘헤롯(Ἡρώδης)”은 이 원칙을 따르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 또 “로데”(Ρόδη)도 ‘호로데’가 될 수 없고, ‘로데’로 남는다.<sup>35)</sup>

다음으로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로마의 이름과 성의 경우 라틴어로 표기하되, 특히 황제나 총독 등 로마의 고위관직 등을 가진 인물 등은 라틴어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황제 ‘클라우디우스’(행 18:2)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눅 2:1)로

31) 마르틴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박정수 역 (과주: 나남, 2012), 236.

32) 기원전 158년경 텔포이의 해방노예 여자 ‘안티고네’는 신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테오도로스’나 ‘도로테아’라는 딸이름을 작명하여 주었다. V. Tcherikover, *Hellenistic Civilization and the Jews*, S. Appelbaum, trans. (New York: Atheneum, 1970), 523, 각주 5.

33) 마르틴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230-241.

34) 그러나 어두의 자음 ‘p’의 거친 숨표의 음가 [ח]를 생략하는 것은 일반원칙을 따른다.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92.

35) Ibid, 93(“② 로(p)의 거친 숨표는 표시하지 않는다: ῥήμα(레마)”). 그리고 본 논문 말미의 부록 표에서 ‘p’가 어두에 올 경우를 보라.

표기한다. 또 사도행전 18:7(비교, 1:23)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Τίτιος Ἰούστος)”도 로마인이 분명하다면<sup>36)</sup> 라틴어식으로 ‘티티우스 유스투스’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라틴어 이름으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는 어말 관용 ‘-스’의 생략을 간과한다. 하지만 “고넬료(Κορινθίλιος)”는 고대 로마의 부대의 소대장급 하급관리로 그리스 표기를 따라 ‘코르넬리오’로 표기한다. 동일한 경우가 사도행전 27:1, 3에 등장하는 “율리오(Ἰούλιος)”인데, 이 인물이 만일 로마황제 ‘율리오’였다면 ‘율리우스’로 표기해야하지만, ‘코르넬리오’와 같이 하급관리이므로 그리스어 ‘율리오’로 표기한다. 28:7의 “보블리오(Πόπλιος)”도 마찬가지로 ‘포플리오’로 표기한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이네아스’와 같은 트로이의 영웅은 그리스어 표기를 보존하여 원지음과 표준국어사전을 따라 ‘아이네아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장편 서사시는 라틴어 표기대로 ‘아이네이스’로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이 ‘아이네아스’와 동명이인으로 나오는 “애니아(Αἰνίας, 행 9:33)”는 축약과 어말생략 규칙을 적용하여 ‘애네아’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범주로서, 그리스어 원지음을 따르되 관용을 따라 ‘-스’를 생략하는 인명은 매우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그리스보(Κρίσπος, 행 18:8)”는 ‘크리스포’로, “소스테네(Σωσθένης, 행 18:17)”는 ‘소스테네’로 그리고 “디모테(Τιμόθεος, 행 16:1)”는 ‘티모테’로 표기하면 되겠다.

### 3.3. 지명표기

이제 지명표기법을 설명해 보자. 우선 지명의 표기원칙도 처음 두 가지 규칙은 인명표기와 같다.

첫째, 앞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의 원칙을 준용한다.

둘째, 어말 ‘-스’ 생략하고, 그 직전모음의 표기 여부는 『개역개정』이 사용한 관용을 따른다(예, ‘코린토스’를 현대어 ‘코린트’가 아니라 ‘코린토’로).

36)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스투스’(Justus)라는 로마의 성을 가진 로마시민으로 판단할 수 있다. 1세기 당시 고린도는 물론 로마의 식민도시에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라틴 이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상당수가 있었다. C.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2744-2745. 그러나 나머지 『개역개정』의 이름 “디도(Τίτος)”는 우리의 원칙에 따라 ‘티토’로 표기해야 한다.

셋째, 구약과 동일할 경우는 원천어(原泉語)를 기준으로 하되, 그리스 지명으로 정착된 경우는 당대 원지음을 따른다(예, ‘다마스코스’나 ‘다마스쿠스’를 히브리어 ‘다메섹’으로, 그러나 “갈릴리”는 ‘갈릴레아’로).

넷째,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도시나 주(州) 이름은 원지음에 축약과 ‘ι’ 동화현상을 반영하여 표기한다(예, “두아디라[Θυατείρα]”를 ‘튀아테이라’가 아니라 ‘튀아티라’로).

다섯째, 로마 시대의 주도(州都) 등 라틴어 지명이 선호되는 도시는 라틴어로 표기한다(예, “다소[Ταρσοός]”를 ‘타르소스’ 대신 ‘타르수스’로).

### 3.3.1. 지역단위 ‘-ια’

그런데 지명에서는 ‘-ς’보다 더 자주 나오는 어미로 ‘-ια’가 사용되는데, 이는 헬레니즘 시대 행정구획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속주(Hyparchia)보다는 작은 지역 혹은 고대의 현(縣)을 지시한다.<sup>37)</sup> 이것은 도시 혹은 지역에서도 종종 사용되는데, 앞 음절에 따라 ‘-αια, -εια, -ια’로 나타난다. 독일어 번역의 경우 ‘-ia’를 도시로(Antiochia, Samaria, 예외, Laodikes), 지역이나 지방으로는 -ien(Asien, Galatien, Samarieren)을 사용한다.<sup>38)</sup> 그러나 『개역개정』은 도시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표기한다. 예를 들면, 지역으로는 “페소보다미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브루기아, 갈라디아, 사마리아, 아가야, 가이사랴”로, 도시로는 “안디옥(‘안티오키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미의 변이 ‘-αια, -εια, -ια’의 표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αια’는 축약되어 ‘-εια’(-하아)로 표기하면 된다. 그리고 ‘-εια, -ια’는 이오타시즘에 의해 ‘-ια’(-이아)로 표기하면 된다. 또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변이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그(어말 ‘-스’) 직전모음의 표기는 『개역개정』이 사용한 관용을 따른다”는 규칙을 적용하여, ‘테살로니케’를 현대어 ‘테살로니키’가 아니라 ‘테살로니카’로 어말모음의 관용에 관한 것은 『개역개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개역개정』에서 지명으로 사용되는 “유대”라는 표기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재의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도 ‘분쟁의 땅’이었다. 분쟁 지역에서 땅 이름은 그 땅 지배자의 언어를 수용하게 된다.

37) 마르틴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104. “코일레 시리아” 지방을 ‘재무장관’이나 ‘장군’이 지배하였다면, 이곳은 ‘휘파르코코스’가 지배하는 곳으로서 그 아래에는 ‘코마르케스’가 지배하는 촌락 ‘코메’가 있었다. ‘-ia’와 동일한 규모의 행정단위는 ‘-itis’였다(예, 암마니티스, 가울라니티스, 갈라디티스 등).

38)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13-14.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 이 지방은 아람어로 ‘예후드(יְהוּדָא)’, 히브리어로는 ‘예후다(יְהוּדָא)’였다. 헬레니즘 시대 이 지방은 ‘코일레-시리아’ 지방의 일부로서 ‘유다이아(Ἰουδαία)’로 명명되었다.<sup>39)</sup> 그러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약의 “블레셋(בְּלִשְׁתִּים)”을 음역한 시리아 지방의 ‘팔라이스티네’(Παλαιστίνη>‘팔레스티나’)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기원후 66년과 132년 로마에 대항한 1·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난 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유대인 추방이 일어난 후에는 유대교의 문헌을 제외한 문헌에서는 ‘팔레스티나(Palestina)’로 고정되었다.<sup>40)</sup>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이곳 지명을 히브리 원지음을 따라 ‘예후다’ 혹은 『개역개정』처럼 애매하게 “유대(땅)”라고 표기할 것인가? 신약 시대의 지명 “유대”에는 분명히 행정단위 ‘-ια’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기원전 63년 로마의 지배 이전부터 이미 시리아 왕국의 ‘코일레-시리아(Κοίλη-Συρία)’ 지방에 속한 ‘갈릴리’, ‘사마리아’(이 두 지명은 아래 설명을 보라), ‘이두매아’ 등과 같은 총독이 지배하던 속주의 하위 지역 행정 단위로 편제된 당대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이다.<sup>41)</sup> 물론 로마 시대에는 아직도 헬레니즘 행정단위 ‘-α’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리스어로 표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역개정』의 “유대”라는 용어 대신 ‘유다이아(Ἰουδαία)’를 사용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αι’가 축약되어(이 경우 ‘-ε’[에]가 아닌 ‘η’로 표기) ‘유대아’로 표기할 수 있겠다. 이 원칙과 규범을 사용한다면, “이두매(막 3:8, Ἰδουμαία)”는 ‘이두매아’로 표기하면 되겠다. 또한 여기서 신약성경이 “유대”라는 단어를 형용사 ‘유대인의’나 ‘유대교의’로도 사용하고 있기에 지명으로서 “유대아”를 구분할 필요는 분명하다. 『개역개정』에서 총 50번이 사용된 “유대”라는 표기 중에서 몇몇 번역은 의미상 재번역할 필요도 있다.<sup>42)</sup>

39)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신구약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3-44.

40) Louis Feldman, “Some Observations on the Name of Palestin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1(1990), 1-23.

41) 빌라도 총독 시기를 제외하면 “유대” 지역은 속주 시리아의 총독이 파견한 하급 장교의 관할에 처했고, 제1차 유대인 반란은 그런 하급 장교들의 수탈과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에 대한 배려가 없는 통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강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용사 ‘Ἰουδαῖος’와 함께 해안이 아닌 육지를 의미하는 ‘땅(γῆ)’이나 ‘지역(χώρα)’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다(Philo, Leg. ad Gai. 281).

42) 총 49번(마 10회, 막 6회, 눅 9회, 요 7회, 행 12회, 기타 5회)이 ‘유대아’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다음과 같이 재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마 9:1(유대아 지역에); 막 10:1(유대아 지역과); 눅 1:5(유대아의), 39(“유대 한 동네”→**유다의** 한 동네: 지역 아닌 지파); 요

### 3.3.2.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공존

다행히 구약에서는 “유대”라는 표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모두 “유다”로 표기되고 있다. “유다”는 구약시대 원지음 ‘예후다(יהודה)’의 우리말 표기로서, 헬레니즘 시대 ‘유대아’와 구분되기에 적당한 표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가 공존하는 경우, 원지음 히브리어를 우선하는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예를 들면, “다메섹(דמשק)”은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개역개정』은 코일레 시리아의 주도(主都) ‘다마스코스(Δαμασκός)’ 대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명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갈릴리아(Γαλιλαία)’와 ‘사마레이아(Σαμαρεία)’의 경우에는 어떤가? 『개역개정』의 “갈릴리”(구약에 3번만 사용. 수 20:7; 21:32; 왕상 9:11)는 히브리어 원지음대로라면 ‘갈릴(גליל)’이라고 해야 하지만 그리스어에서 차용하여 ‘갈릴리’(<‘갈릴리아’의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산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지만, 헬레니즘 시대부터 코일레-시리아에 속한 현(縣) 단위의 지역명칭으로 분화된 ‘-α’로 사용된 여러 지역들 중 하나였다(‘사마레이아’, ‘갈릴리아’, ‘유다이아’, ‘이두마리아’ 등).

‘쇼메론(שומרון)’에서 유래한 “사마리아”(구약에만 28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역은 포로기 이전은 물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속주 단위로 자리 잡아 총독이 파견된 상태였다.<sup>44)</sup> 그 이후 사마리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 화려하게 부활하며 종교적으로 ‘유대아’와 대립된 지방으로 코일레-시리아 지역에 속한 하나의 지역명칭으로 자리 잡았다.<sup>45)</sup>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행정단위 ‘-α’가 표시된 그리스어 음가를 따라 ‘갈릴래아’(<‘갈릴리아’)와 ‘사마리아’(<‘사마레이아’)에서 ‘-ει’가 ‘-ι’로 발음되는 현상)로 표기하면 된다. 동일한 행정 지역으로 편제된 “가이사랴”(신약 17번. Καισάρεια)도 이와 유사하게 ‘카이사리아’(<‘카이사레이아’)의 축약)로 표기할 수 있겠다.<sup>46)</sup>

11:7(유대로→유대아의 도시로); 행 8:1(유대아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지역으로); 19:14 (“한 유대 제사장”→어떤 유대인 제사장); 계 5:5(“유대 지파의”→유다 지파의) 등이다.

43)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6.

44) 이는 에스라-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입증된다.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100.

45) 박정수, “유대교의 사마리아 통합의 갈등과 초기 기독교의 선교”, 『신약논단』 14:1 (2007), 219-248, 특히 223-224.

46) 비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카이사레아”(마 16:13 등)로 ‘-εια’를 표기하는데, 아마도 유대아와 동일한 행정단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오타시즘’을 반영해



구약의 지명으로서 그리스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깃담”을 언급할 수 있다. “시돈(Σιδών)”은 히브리어 ‘치돈(צִידוֹן)’을 표기한 『개역개정』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러나 “두로”는 히브리어 ‘초르(צֹר)’보다는 아람어 ‘투르(ܛܘܪ)’를 표기한 그리스어 ‘튀로스(τύρος)’로 사용되었다. 이 두 도시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부터 해안 지대 대표적인 그리스 무역도시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당시 히브리어보다 그리스어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기에 적어도 신약의 본문에서는 『개역개정』과 같이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다만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대의 도시 ‘티레’와 라틴어 ‘티루스’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자음과 모음, 어미의 관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두로”를 ‘티로(τύρος)’로 할 것인지 현대어 ‘티레’를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대로 ‘티레’로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깃담”은 앞서 신약에서 “구브로”로 표기되는데 이제까지의 규칙을 따르면 ‘퀴프로’가 되겠으나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키프로스’로 사용하는 편이 좋겠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국명(國名) 가운데 하나가 “애굽”이다. 이 단어는 이미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호메로스에서 ‘아이킵토스(Αἴγυπτος)’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미즈라임(מִצְרַיִם)’으로 수백 번(나라명으로만 586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칠십인역은 그리스어로 ‘아이킵토스’로 ‘번역’하여 사용한 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말 그리스어 표기인데, 어두(語頭) ‘아이’의 축약과 어말 ‘-스’를 생략하고 모음 ‘u’를 ‘우’로 발음하여 ‘애굽’이 된 것이다. 이제까지 필자가 제시한 표기 원칙을 적용한다면 ‘애킵트’ 혹은 ‘애킵트’가 가능할 것이나, 라틴어 불가타에서 ‘aegyptus’로 표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표준어를 대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사한 예이지만 다른 사례는 구약에서는 “구스(כּוּשׁ)”라는 나라(민족) 이름을 그대로 히브리어로 표기하여 사용하지만, 신약에서는 ‘아이티오프(Aιθίοψ, 행 8:27)’를 ‘에티오프’도 아니고 아예 현대어로 바꾸어 “에디오피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성경과 역사의 괴리를 좁히고 자하는 개정의 취지를 살린다면 “애굽”을 ‘이집트’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에디오피아’와는 달리 이 단어는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도 워낙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구약 639회 신약 17회 총 639회), 개정을 한다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또 “출애굽기”라는 현재의 책명의 개정에도 대해서도 더 토론이 필요하겠다.

‘이야’로 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3.3.3.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공존

기원후 1세기는 이미 지중해 연안 전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왔지만, 문화와 행정체제 특히 대중의 언어는 그리스어를 통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속주명과 지명을 기존의 그리스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라틴어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기에, 인명과 지명을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 어느 언어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우선 개연적인 원칙은 당대 선호하는 표기를 따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sup>47)</sup> 하지만 당대 특정 지명을 그리스어나 라틴어 가운데 어느 것으로 명명하였을지 고증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지명 대부분은 당대 원지음인 그리스어로 표기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하겠다. 물론 히브리어를 따라야 할 것들도 있다. 또 라틴어로 표기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사용하는 라틴어 지명으로서 표준대백과사전의 용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다마스코스(Δαμασκός)’는 로마의 속주 코일레-시리아의 주도(州都) 이므로 로마식으로 ‘다마스쿠스(Damaskus)’로 사용할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지음을 따라 ‘다메섹’으로 사용하여 구약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약에만 나오는 ‘타르소스(Ταρσός)’는 속주 ‘킬리키아’의 주도(州都)로 ‘타르수스(Tarsus)’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sup>48)</sup> 그렇지만 “에베소”는 고전 그리스 시대로부터 전통적인 헬레니즘 도시로서 ‘에페수스’ 대신 ‘에페소’로 한다.

어미에 관한 이런 관용규칙을 따라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 현대 지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리비아(행 2:10 Λιβύη)”는 ‘리비에’보다는 ‘리비아’를, “구레네(행 2:10, Κυρήνη)”의 어미는 그대로 사용하여 ‘키레네’로, “그레데(행 2:11, Κρήτες)”는 “크레테”보다는 ‘크레타’로 사용한다. 페르가몬 왕국과 연관된 ‘팜필리아’의 해안도시 “벼가(행 13:13, Πέργη)”도 ‘페르가’로, 또 고대사의 중요한 도시 “베니게(행 11:19, Φοινίκη)”는 ‘피니케’보다는 현대어 ‘페니키아’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에 따라 지명으로 사용된 서신서의 제목도 함께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코린트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새서’, ‘테살로니키서’ 등으로 표기하면 되겠다. 물론 지명에 관한 이러한 관용의 기준은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야겠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구약의 지명과 연관되어 연구할 과

47)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6.

48) 물론 헬레니즘 시대에 새로이 알려진 지명은 원래의 그리스어 본문의 형태로 인용하여 표기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벧쉐안’이라는 지명은 신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스키토폴리스’로 표기하면 된다. ‘아코’는 ‘프톨레마이시스’(“톨레마이” 행 21:7)로 사용되었다.

제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 4. 맺는말

신약 그리스어의 원지음에 따른 『개역개정』의 인명지명의 새로운 표기는 성경 시대와 오늘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긴급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물론 가장 최근에 발행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검토하여, 사도행전의 NTG<sup>28</sup> 원문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했다.

표기는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현재 우리말 성경에서 파열음을 일괄적으로 ‘h, c, ɣ’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되, 유성 파열음 ‘π, τ, κ’, ‘φ, θ, χ’는 ‘p, t, k’로, 유성 파열음 ‘β, δ, γ’는 된소리 ‘ㅃ, ㄸ, ㄲ’ 대신 거센소리 ‘h, c, ɣ’로 사용한다. 모음에서 ‘u’은 ‘u’로 표기하지만 ‘u, eu, uu, ou’가 ‘i’로 정착되어 현대의 인명과 지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i’로 표기한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원칙대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인명과 지명은 다음과 같은 범주와 지침을 수립하여 표기한다. 1. 어말에서 일어나는 ‘-스’를 생략하되, 그 직전모음의 표기는 『개역개정』이 사용한 관용을 따른다. 2. 예수와 12제자 및 그 밖의 사도 이름과 복음서명은 관용을 유지하되, 7인의 헬레니즘계 유대인과 서신서의 수신자와 같이 그리스 인명은 개정하여 표기한다. 3. 구약의 인물과 동일인일 경우는 원지음을 기준으로 하되,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그리스어로 표기하고 로마의 관직이나 이름을 가진 인명은 라틴어 표기로 표기한다. 4. 지명이 구약과 동일할 경우는 원천어를 기준으로 하되, 그리스 지명으로 정착된 경우는 원지음을 따른다. 5.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도시나 주(州) 이름은 원지음에 축약과 ‘i’ 동화현상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6. 로마 시대의 주도(州都) 등 라틴어 지명이 선호되는 도시는 라틴어로 표기한다.

이 논문에서 구약의 인명지명과 통일성에 관한 문제는 필자의 역량과 지면의 한계로 자세히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향후 구약학자와 심도 깊은 토론을 기대한다. 더 나아가 대한성서공회를 중심으로 독일성서공회와 유사한 ‘성경인명지명 통일 방안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말 성경독자들이 역사와 성경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제 앞의 원칙과 지침에 따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표기해 제안한다.

<사도행전 인명과 지명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 반복되는 인명지명은 처음 나온 인명과 지명의 장, 절만 표기함
- ‘\*’는 『개역개정』의 관용을 유지(‘교, 트, 카’ 표기와 어말 ‘-스’ 생략 제외)
- ‘\*\*’는 현행 표준국어사전이나 인터넷백과사전 등 자주 사용되는 용어
- ‘<’는 동화 혹은 ‘경쟁어’(예, 테살로니키<테살로니카)
- ‘그.’, ‘라.’는 각각 그리스어, 라틴어 선호표시로 ( ) 안은 원칙.

4.1. 인명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한글』	제안결과	비고
1	1	Θεόφιλος	테오빌로	테오필로	테오필로스	테오필로	
1	5	Ἰησοῦς	예수	예수	예수	예수*	
1	13	Πέτρος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12사도
1	13	Ἰωάννης	요한	요한	요한	요한*	”
1	13	Ἰάκωβος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	”
1	13	Ἀνδρέας	안드레	안드레아	안드레	안드레*	”
1	13	Φίλιππος	빌립	필립보	필립	빌립*	” 필립 (6:5 등)
1	13	Θωμᾶς	도마	토마	토마스	도마*	”
1	13	Βαρθολομαῖος	바돌로매	바르톨로메오	바돌로매	바돌로매*	”
1	13	Μαθθαῖος	마태	마태오	마태	마태*	”
1	13	Ἀλφαῖος	알패오	알패오	알패오	알패오*	”
1	13	ζηλωτής	셀롯인	혁명당원	열심독립당 당원	셀롯인	
1	13	Ἰούδας	유다	유다	유다	유다*	12제자
1	23	Μαθθίας	맛디아	마티아	맛디아	맛디아*	12사도
1	23	Βαρσαββᾶς	바사바	바르사빠	바르삼바	바르사바	쌍자음표기 법 <sup>49)</sup>
1	23	Ἰούστος	유스도	유스도	유스투스	유스투스	라.(저명가문)
4	36	Βαρναβᾶς	바나바	바르나바	바르나바	바나바*	사도
5	1	Σάπιρα	삼비라	삼피라	삼비라	삼피라	
5	1	Ἀνανίας	아나니아	아나니아	하나냐	하나니아	하나냐 (23:2; 24:1 히.)
5	34	Γαμαλιήλ	가말리엘	가물리엘	가말리엘	가말리엘	

49)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음역 원칙 제안”, 193: “① 쌍자음은 단자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σάββατον(사바톤), ...”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 한글』	제안결과	비고
5	36	Θευδᾶς	드다	튜다	튜다	튜다	
6	5	Νικάνωρ	니가노르	니가노르	니카노르	니카노르	
6	5	Νικόλαος	니콜라	니콜라오	니콜라우스	니콜라오	
6	5	Τίμων	디몬	디몬	티몬	티몬	
6	5	Παρμενάς	바메나	바르메나	파르메나	파르메나	
6	5	Πρόχορος	브로그로	브로코로	브로그로	프로코로	
6	5	Στέφανος	스테반	스테파노	스테판	스테판	
8	27	Κανδάκη	간다게	간다케	간다게	칸다케	
9	33	Αἰνέας	애니아	애네아	아이네이스	아이네아	그.(동명이인)
9	36	Ταβιθά	다비다	다비타	타비다	타비타	
9	36	Δορκάς	도르가	도르가	도르가	도르카	
10	1	Κορινθῖος	고넬료	고르넬리오	코르넬리우스	코르넬리오	라.(로마하급관)
11	28	Κλαύδιος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라.(로미황제)
11	28	Ἄγαθος	아가보	하가보	하가보	하가보	
12	12	Μάρκος	마가	마르코	마가	마가*	복음서저자
12	13	Ῥόδη	로데	로데	로데	로데	
12	20	Βλάστος	블라스도	블라스토	블라스도	블라스토	
13	1	Νίγερ	니게르	니게르	니게르	니게르	
13	1	Λούκιος	루기오	루기오	루키우스	루기오	
13	1	Μαναήν	마나엔	마나엔	마나엔	마나엔	
13	1	Ἡρώδης	헤롯	헤로테	헤롯	헤롯	
13	6	Βαριτροῦς	바예수	바르예수	바르예수	바르예수	
13	8	Ἐλύμας	엘루마	엘리마	엘루마	엘뤼마	
13	9	Παῦλος	바울	바울로	바울	바울*	사도
14	12	Ζεύς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14	12	Ἑρμῆς	헤르메스	헤르메스	헤르메스	헤르메스	
15	22	Σιλᾶς	실라	실라	실라	실라	
16	1	Τιμόθεος	디모테	디모테오	디모테	티모테	
16	14	Λυδία	루디아	리디아	리디아	뤼디아	
17	6	Ἰάσων	야손	야손	이아손	야손	
17	18	Στοϊκός	스토아	스토아	스토아	스토아**	
17	18	Ἐπικούρειος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	
17	34	Δάμαρις	다마리	다마리스	다마리스	다마리스	라.
17	34	Διονύσιος	디오누시오	디오니시오	디오니시우스	디오니시우스	라.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 한글』	제안결과	비고
18	2	Πρίσκιλλα	브리스길라	브리스킬라	프리스킬라	프리스킬라	
18	2	Ἀκύλας	아쿨라	아퀼라	아퀼라	아퀼라	
18	7	Τίτιος	디도	디디오	티티우스	티티우스	라.(로마이름)
18	8	Κρίσπος	그리스보	그리스보	그리스보	크리스포	
18	12	Γαλλίων	갈리오	갈리오	갈리오	갈리우스	라.(로마총독)
18	17	Σωσθένης	소스테네	소스테네	소스테네	소스테네	
18	24	Ἀπολλῶς	아폴로	아폴로	아폴로	아폴로	
19	9	Τύραννος	두란노	디란노	튀란노스	튀란노	
19	14	Σκευᾶς	스게와	스큐아	스게와	스큐아	
19	22	Ἔραστος	에라스도	에라스도	에라스도	에라스도	
19	24	Δημήτριος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테메드리오	테메트리오	
19	24	Ἄρτεμις	아데미	아르데미스	아르데미스	아르데미스**	
19	29	Γάιος	가이오	가이오	가이우스	가이오	그.(황제 아님)
19	29	Ἀρίσταρχος	아리스다고	아리스타르고	아리스타르코스	아리스타르코	
20	4	Τυχικός	두기고	디키고	두기고	튀키코	
20	4	Τρόφιμος	드로비모	드로피모	트로피모스	트로피모	
20	4	Πύρρος	부로	비로	부로	튀로	
20	4	Σεκούνδος	세군도	세군도	세쿰두스	세쿰도	
20	4	Σώπατρος	소바더	소바드로	소바더	소파트로	
20	9	Εὐτυχός	유두고	유디코	유두고	유튀코	
23	24	Φήλιξ	벨릭스	펠릭스	펠릭스	펠릭스	라.(총독)
23	26	Κλαύδιος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라.(황제)
24	1	Τέρτυλλος	더툴로	테르딜로	테르틸로스	테르틸로	
24	22	Λυσίας	루시아	리시아	리시아스	뤼시아	
24	24	Δρούσιλλα	드루실라	드루실라	드루실라	드루실라	
24	27	Πόρκιος Φῆστος	보르기오 베스도	보르기오 페스도	포르키우스 베스도	포르키우스 페스투스	라.(총독)
25	13	Βερνίκη	버니게	베르니게	베르니케	베르니케	
25	13	Ἀγρίππας	아그립바	아그리빠	아그리파	아그리파**	
27	1	ὁ Σεβαστός	아구스도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라.(황제)
27	1	Ἰούλιος	율리오	율리오	율리우스	율리오	그.(로마하 급관)
28	7	Πόπλιος	보블리오	푸블리오	푸블리우스	포플리오	그.(로마하 급관)

#### 4.2. 지명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한글』	제안결과	비고
1	8	Σαμάρεια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사마리아
1	8	Ἱεροσόλυμ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1	8	Ἰουδαία	유대	유다	유대아	유대아	
2	9	Καπαδοκία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2	9	Πάρθος	바대	바르티아	파르티아	파르티아**	
2	9	Πόντος	본도	본도	폰토스	폰토스**	
2	9	Ἀσία	아시아	아시아	속주 아시아	아시아**	
2	10	Κυρήνη	구레네	키레네	키레네	키레네**	
2	10	Αἴγυπτος	애굽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애굽토
2	10	Λιβύη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리비에
2	10	Παμφυλία	밤빌리아	밤필리아	팜필리아	팜필리아**	
2	10	Φρυγία	브루기아	프리기아	프리기아	프리기아**	
1	11	Γαλιλαία	갈릴리	갈릴래아	갈릴래아	갈릴래아	그.(히.갈릴리)
2	11	Κρής, Κρήτες	그레테	그레테	크레타	크레타**	<크레테
4	36	Κύπρος	구브로	키프로스	키프로스	키프로스**	
6	5	Ἀντιόχεια	안디옥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	
6	9	Κιλικία	길리기아	길리기아	길리기아	킬리키아**	
6	9	Ἀλεξανδρία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8	27	Αἰθίο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에티오프
8	40	Καισάρεια	가이사랴	가이사리아	카이사레아	카이사리아	
8	40	Ἄζωτος	아소도	아스돗	아스돗	아스돗	히.
9	10	Δαμασκός	다메섹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다메섹	히.
9	11	Ταρσσος	다소	다르소	타르수스	타르수스	라.주도(州都)
11	19	Φοινίκη	베니게	페니키아	페니키아*	페니키아**	<포이니케
12	20	Τύριος	두로	띠로	티레	티레**	<튀루스(라.)
12	21	Σιδών	시돈	시돈	시돈	시돈	
13	4	Σελεύκεια	실루기아	셀류기아	셀류기아	셀류기아	<셀레우키아
13	5	Σαλαμίς	살라미	살라미스	살라미스	살라미스**	
13	6	Πάφος	바보	바포	파포스	파포	
13	13	Πέργη	버가	베르게	페르가	페르가**	<페르게
13	14	Πισδία	비시디아	비시디아	피시디아	피시디아	
13	51	Ἰκόνιον	이고니온	이고니온	이고니온	이코니온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한글』	제안결과	비고
14	6	Δέρβη	더베	테르베	더베	테르베	
14	6	Λυκαονία	루가오니아	리가오니아	루가오니아	리카오니아**	
14	6	Λύστρα	루스트라	리스트라	루스트라	뤼스트라	
14	24	Πισιδία	비시디아	비시디아	피시디아	피시디아	
14	25	Ἀττάλεια	앗달리아	아탈리아	아탈리아	아탈리아	
16	6	Γαλατία	갈라디아	갈라디아	갈라티아	갈라티아	
16	7	Μυσία	무시아	미시아	미시아	뫼시아	
16	7	Βιθυνία	비두니아	비티니아	비티니아	비티니아**	
16	8	Τρωάς αδα	드로아	트로아스	트로아스	트로아스**항	항구: ἴδα
16	9	Μακεδονία	마케도냐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16	11	Νεά Πόλις	네압볼리	네아폴리스	네아폴리스	네아폴리스	
16	11	Σαμοθράκη	사모드라케	사모드라케	사모트라케	사모트라케	
16	12	Φίλιπποι	빌립보	필립비	필리피	필리피**	<필리포이
16	14	Θυατείρα	두아디라	티아디라	두아디라	티아티라	
17	1	Θεσσαλονίκη	테살로니가	테살로니카	테살로니키	테살로니키*	<테살로니카
17	1	Ἀπολλωνία	아볼로니아	아폴로니아	아폴로니아	아폴로니아	
17	1	Ἀμφίπολις	암비볼리	암피볼리스	암피폴리스	암피폴리스	
17	10	Βέροια	베뢰아	베레아	베뢰아	베로이아	
17	15	Ἀθήνη	아텐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	<아테나이
17	19	Ἄρειος πάγος	아레오바고	아레오파고	아레오파고스	아레이오스 파고스	문장 음역
18	1	Κόρινθος	고린도	고린토	코린트	코린토*	<코린트**
18	12	Ἀχαΐα	아가야	아카이아	아카이아	아카이아	
18	18	Κεγχρεαί	겐그레아	겐크레아	겐그레아	켄크레아이	
18	19	Ἔφεσος	에베소	에페소	에페수스	에페소	그.
20	13	Ἄσος	앗소	아쏘	앗소	앗소	
20	14	Μιτυλήνη	미틸레네	미틸레네	미틸레네	미틸레네**	
20	15	Χίος	기오	키오스	키오스	키오스**	
20	15	Μίλητος	밀레토	밀레토스	밀레토스	밀레토스**	
20	15	Σάμος	사모	사모스	사모스	사모스**	
21	1	Κώς	고스	코스	코스	코스**	
21	1	Ῥόδος	로도	로도스	로도스	로도스**	
21	1	Πάταρα	바다라	바다라	파타라	파타라	
21	7	Πτολεμαΐδα	톨레마이	프톨레마이스	프톨레마이스	프톨레마이 스**항	



장	절	NTG <sup>28</sup>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한글』	제안결과	비고
23	31	Ἀντιπατρίδα	안디바드리	안티바드리스	안디바드리	안티파트리스** 스**항	
27	2	Ἀδραμυττηνός	아드라뫼테노	아드라미티움	아드라뫼테노	아드라뫼테노	
27	5	Λικία	루기아	리키아	리키아	리키아**	
27	5	Μύρα	무라	미라	무라	뫼라	
27	7	Κνίδος	니도	크니드스	크니도스	크니도스**	
27	7	Σαλμώνη	살모네	살모네	살모네	살모네	
27	8	Λασαία	라새아	라새아	라새아	라새아	
27	12	Φοῖνιξ	뫼닉스	페닉스	피닉스	피닉스**	<포이닉스>
27	16	Καῦδα	가우다	가우다	가우다	카우다	
27	27	Ἀδρίας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아드리아**	
28	1	Μελίτη	멜리테	멜리테	몰타**	몰타**	<멜리테>
28	12	Συράκουσαι	수라구사	시라쿠사	시라쿠사	쉬라쿠사이	
28	13	Ῥήγιον	레기온	레기움	레기움	레기온	
28	13	Ποτίολοι	보디올	보디올리	포티올리	포티올로이	
28	15	Ἀπίου	압비오	아피오	아피우스	아피우스	라.
28	15	τρεις ταβέρναι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나이	트레이스 타베르나이	문장 음역

<주제어>(Keywords)

성경의 고유명사, 그리스어 음역, 성경 그리스어, 『개역개정』의 표기법, 신약의 인명지명 표기.

biblical proper names, transcription of Greek, Biblical Greek, transliteration of NKRV, transliteration of NT's person and place.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7일)

<부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대조표<sup>50)</sup>

그리스어		우리말		보기
		모음앞	자음앞 /어말	
자음	β	비	브	βασιλεία(바실레이아), βρέφος(브레포스), Ἰακώβ(이아코브)
	γ	ㄱ	그	γεῖνα(게네아), γνώσις(그노시스)
	γγ	ㅇ ㄱ	-	ἄγγελος(앙겔로스)
	γκ	ㅇ ㅋ	-	ἀνάγκη(아낭케)
	γχ	ㅇ ㅋ	-	λόγχη(롱케)
	γξ	-	ㅇ ㄱ스	φάραγξ(파랑크스)
	δ	ㄷ	드	δῶρον(도론), δραχμή(드라크메), Ἰωβήδ(이오베드)
	ζ	ㅈ	-	ζωή(조에)
	θ	ㅌ	트	θάνατος(타나토스), ἀποθνήσκω(아포트네스코), Ναζαρέθ(나자레트)
	κ	ㅋ	ㄱ, ㅋ	κόμη(코메), ἑκστασις(엑스타시스), ἔκρινας(에크리나스), ἐκ(에크)
	λ	ㄹ, ㄹㄹ	ㄹ	λόγος(로고스), καλός(칼로스), ἐλπίς(엘피스), Ἰσραήλ(이스라엘)
	μ	ㅁ	ㅁ, ㅁ	μέγας(메가스), ἄμνος(암노스), μνημεῖον(므네메이온), Ἱερουσαλήμ(히에루살렘)
	ν	ㄴ	ㄴ	ναός(나오스), ἄνθρωπος(안트로포스), χάρις(카린)
	ξ	ㄱ스, ㅋ스	ㄱ스	δόξα(독사), ξύλον(크실론), θρίξ(트릭스)
	π	ㅍ	ㅍ, ㅍ	ποινηρός(포네로스), προσευχή(프로슈케), Αἴγυπτος(아이킵토스), ὕπνος(휘프노스)
ρ	ㄹ	ㄹ	παρακοή(파라코에), πατήρ(파테르)	

50)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95-196.

자음	ῥ	ㄹ	-	ῥῆμα(레마)
	σ,ς	ㅅ	스	σοφία(소피아), ἔσχατος(에스카토스)
	τ	ㅌ	트	τέλος(텔로스), τρίς(트리스), Τόρεα(이아레트)
	φ	ㅍ	프	γραφή(그래페), Ἰωσήφ(이오세프)
	χ	ㅋ	크	χάρισμα(카리스마), χρόνος(크로노스), οὐχ(우크), τέχνη(테크네)
	ψ	ㅍㅅ, 프ㅅ	ㅍ스	ἔγραψε(에그랍세), ψυχή(프슈케), μώλωψ(몰 릅스)
	ʹ(거친숨표)	ㅎ	-	ὁδός(호도스)
모음	α	아	ἀγαθός(아가토스)	
	αι	아이	ἀσχύνη(아이스퀴네), πορεύομαι(포류오마이)	
	αυ	아우	αὐτός(아우토스), συναυξάνομαι(쉬나옥사노 마이)	
	α	아	ἡμέρα(헤메라)	
	ε	에	ἐναντίου(에난티온), ὁμός(호모세)	
	ει	에이	εἰς(에이스), λύει(뤼에이)	
	ευ	유	εὐαγγέλιον(유앙겔리온)	
	η	에	ἡμέρα(헤메라), ἔρημος(에레모스)	
	ηυ	유	ἠύρισκον(휴리스콘)	
	η	에	ἤτησαν(에테산), εἰρήνη(에이레네)	
	ι	이	ἴδιος(이디오스), δίδωμι(디도미), πίστις(피 스티스)	
	ο	오	ὀφθαλμός(오프탈모스), δόντος(돈토스)	
	οι	오이	οἴκοις(오이코이스)	
	ου	우	οὐρανός(우라노스), δοῦλος(둘로스)	
	υ	위	ἕδωρ(휘도르), κύριος(퀴리오스)	
	υι	위이	υἱός(휘이오스)	
	ω	오	ὠφέλεω(오펠레오)	
ω	오	δικαίω(디카이오)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구두인, “希臘語와 韓國語 發音의 比較”, 「신학논단」 7 (1962), 114-124.
-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 3. 28.)”,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28](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a428) (2022.7.30.).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편, 『국어 어문 규정집』 초판,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대한성서공회, “우리말성경번역사” 및 “한글성경 계보도”,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2](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2) (2022.7.30.)
-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신약논단」 17:1 (2010), 177-200.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터·무늬: 신약중간사와 기독교의 기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박정수, “유대교의 사마리아 통합의 갈등과 초기 기독교의 선교”, 「신약논단」 14:1 (2007), 219-248.
- 이상일,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 음가 재구”, 「성경원문연구」 42 (2018), 68-89.
- 이상일, “비교재구와 내적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헬라어의 모음 음가 재구”, 「신약연구」 18:1 (2019), 79-103.
-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51-170.
- 최인호 편, 『개정판 바른 말글 사전』, 서울: 한겨레출판, 2007.
-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편, 『세계 인문지리 사전』 상·하권, 서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2009.
- 행엘, 마르틴,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박정수 역, 파주: 나남, 2012.
-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 Bailey, N. A., “Proper Names in the Bible: translation and transliteration issues”, *Work&Deed* 12 (2007), 1-22.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ed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7. Auf., Göttingen: Vanderhoeck & Ruprecht, 1990.
- Deutsche Bibel Gesellschaft, ed., “Loccumer Richtlinien zur einheitlichen Schreibung biblischer Eigennamen”, <https://www.die-bibel.de/bibeln/wissen-zur-bibel/wissen-bibeluebersetzung/loccumer-richtlinien/> (2022.7.30.).

Feldman, L. H., “Some Observations on the Name of Palestine”, *Hebrew Union College Annual* 61 (1990), 1-23.

Keener, C. S.,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ol. 3,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Tcherikover, V., *Hellenistic Civilization and the Jews*, S. Appelbaum, trans., New York: Atheneum, 1970.

<Abstract>

**A Proposal for the New Transliteration of Proper Names  
in the New Testament:  
Focused on Names and Places in Acts (NKRv)**

Jeongsoo Park  
(Sungkyul University)

This paper reviewed proper names of people and places in NKRv and KCT as well as the most recently published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and transliterated the names in the original NTG<sup>28</sup> text of Acts by the following below. The proposed new transcription follows the basic principles for foreign word transcription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In the consonant, that does not follow the method of the NKRv's transcription from all the polivise as 'ㅍ, ㅌ, ㅊ', but the transcription of polivise 'π, τ, κ,' 'φ, θ, χ' into 'ㅍ, ㅌ, ㅊ', and the polivise 'β, δ, γ' into the aspirated sound 'ㅍ, ㅌ, ㅊ' instead of the fortis 'ㅍ, ㅌ, ㅊ'. In the vowel, 'υ' is written as 'ㅓ', but when 'υ, ελ, υλ, ολ' is settled as 'ㅓ' and used for modern person and place names, it is written as 'ㅓ'.

The basic principle of foreign words transcription states the following: "The established usages of foreign words are respected, but the scope and usage are determined separately." In this regard, proper names of people and place shall be established and indic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guidelines. First, remove '-스' that occurs in the final ending, but for the transliteration of the vowel in front of -s, follows the idiomatic use in the NKRv. Second, the names of Jesus, twelve disciples, and the other apostles and the titles of the four Gospels shall follow established transcriptions, but Greek names such as the seven Hellenistic Jews and names of the epistles shall be newly transliterated. Third, if the same person is mentioned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it shall be based on the Hebrew sound. But if the person has the same name, it shall follow the transcription of Greek while Roman officials and Latin names follow the transcription of Latin. Fourth, if the place name is the same as in the Old Testament, it shall be based on Hebrew, but if it is settled as a Greek place

name, it shall follow Greek. Fifth, the names of city or state formed during the Hellenistic period shall follow the transcription of Greek, reflecting the abbreviation and ‘ι’ assimilation phenomenon. Sixth, cities where Latin names are preferred, such as capital cities of the Roman period, follow the transcription of Latin.